

기독교교육의 원형으로서의 구약성경의 언약과 교육

조성국*

목 차

1. 서론
2. 언약과 교육
3. 언약교육의 담당자
4. 언약교육의 장소와 시간
5. 결론

1. 서 론

기독교교육의 학문적 논의에 있어서 성경신학적 기초에 대한 연구는 당연한 출발점이면서 지속적인 재확인의 필요성을 갖는 주제이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이해와 현대 학문적 성향 때문에 흥미롭게도 교육학으로서의 현대과학적 관심과 전문성에 비하여, 기독교교육의 성경신학적 연구의 심화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기독교교육학자들의 전문성이 사회과학으로서의 교육학의 훈련과정으로 이루어져 온 점이나, 정 반대로 기독교교육학을 신학의 적용방법에 관련된 학문으로 이해해온 흐름이 교육문제에 대한 기초적 탐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학자로서는 신학적 기초에 대한 전문성에 자신감이 없었고, 신학자로서는 교육과학에 대한 전문성에 자신감이 없었다는 점이,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되어 왔겠지만 사실상 교육의 성경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의 결과적 불만족을 낳았다.

기독교교육학자들에 의한 구약성경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는 많은 경우 기독교교육역사 교과서의 한 부분 내지 기독교교육개론의 역사적 기초에 대한 개괄적 스케치에 만족해 왔다. 그 결과 최근까지의 교육의 구약성경적 기초에 대한 기독교교육분야에서의 이해는 신학의 경향에 따라 채색되면서 다음의 몇 가지 경향을 보여왔다.

첫째, 전통적 복음주의 계열의 교육학자들처럼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특정 교육의 장면이나

* 기독교교육과

교육용어를 담고 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경우 교육을 위한 신학을 강조하기보다는 성경 자체의 복음적 내용을 교육학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졌으므로 교육의 구약신학적 기초란 그야말로 서론적 장식에 불과하였다. 교사핸드북에 해당되는 교육서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구약성경에 접근한다.

둘째, 복음주의 교육학자들의 경우 복음주의적 성경관과 인본주의적 교육역사학에 대한 이해가 혼재하면서 비록 구약성경을 유대인들의 종교문서로 간주한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교육현상을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술하는 경우나¹⁾, 또는 구약성경의 교육을 기독교교육이 차용한 유대교육의 자료정도로 오해될 수 있는 용어인 “빛”이라는 말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²⁾. 구약성경이 담고 있는 교육명령과 현상적 교훈에 있어서 절대성을 인정하지만 역사적 진술에 있어서는 교육사학의 입장을 따르는데서 오는 이러한 혼란이 기독교교육학자들에게 혼란한 현상이다.

셋째, 진보주의적 경향의 신학을 일부 수용하는 기독교교육학자들의 경우 성경 자체에 대한 역사주의적 비평적 접근을 기초로 기독교교육의 교육신학적 의미를 탐구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경우 구약성경의 교육현상은 유대교 교육으로 간주된다. 구약성경을 읽는 관점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수용적 태도보다는 인간 혹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판찰되므로 결국 구약성경은 인간적 탐구의 노력을 보여주는 교육서로 이해된다. 당연히 구약성경에서의 교육탐구는 교육역사학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약성경 외적 문서에서의 교육현상과 금언들이 구약성경자료들과 같은 가치가운데 논의되면서 히브리인들의 교육현상을 역사적으로 기술하였다.³⁾

구약성경의 교육에 대한 역사적 기술 이상의 신학적 논의는 최근 진보적 신학성향의 학자들에 의해 나타났다. 여기서 진보적 성향이란 성경에 대한 현대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탐구태도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의 교육적 기초를 위한 신학적 탐구는 월터 부르거만(Walter Brueggemann)의 연구가 그 전형이다.⁴⁾ 그는 기독교교육학 분야에 대하여 구약성경신학이 의미하는 바를 사회학적 정경비평방법을 통하여 소위 신학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정경을 형성하던 신앙공동체에 있어서 교육은 공동체의 성실성보존과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정경형성의 사회학적 인식론의 구조에 유의하면서 구약신학의 교육구조를 *ethos*와 *pathos*와 *logos*에 이르는 변증법적 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⁵⁾

부르거만의 연구는 기독교교육학 분야의 구약성경신학적 기초에 대한 연구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학문적인 신학적 연구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그가 구약성경의 단편 내지 몇몇 구절들을 통하여 교육을 강조하거나 교훈을 얻는 정도의 수준에서, 또 구약을 넓은 역사의 시대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사실을 기술하는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약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교육의 함의를 신학적으로 드러내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르거만은 사회과학 일변도의 현대기독교교육연구경향에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려는 첫 의도와는 달리, 구약성경 고유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현대지식사회학적 패러다임의 전제를 통하여 사실은 그 동안의 사회과학적 기독교교육탐구들이 가져온 동일한 대답을 정경에 대한 비평적 논의로 끌어내었을 뿐이었다.⁶⁾ 따라서 구약성경과 교육에 대한 기초신학적 논의는 부르거만에 의해 문

1) C.B.Eavey. 1977.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p.43.

2) K.O.Gangel & W.S.Benson. 1983. Christian Educa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 Chicago: Moody Press. p.19.

3) L.J.Sherrill. 1944.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p.5-9(72). & W.Barclay. 1974.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 Grand Rapids: Baker. p.11-48.

4) W.Brueggemann. 1999. 창조적 말씀을 통한 기독교교육(The Creative Word: Cannon as a Model for Biblical Education). 강성열 김도일 공역. 서울: 한글.

5) Ibid. p.13-30.

6) 교회와 교육 2001년 봄호에 개재된, 부르거만의 책에 대한 필자의 서평 참고. p.160-168

제제기가 되었을 뿐,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보다 열등하거나, 기독교발생에 단지 영향을 준 히브리종교전통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의 주체적 자기추구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종교문서가 아니라 신약성경과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신약성경에 앞서 점진적으로 구원계시를 드러내어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 자체가 드러내는 패러다임과 명백한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현대와 후기현대의 패러다임에 따라, 초월성과 하나님 중심성을 거부하고, 현세성과 인간(혹은 사회) 중심적 관점에서 구약성경의 배경을 광범위하게 추론하여 재해석하고자 할 때, 결국 현대와 후기현대사회가 보고자 하는 바를 성경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 구약성경 고유의 기독교교육구조를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구약성경을 교육에 관한 전례나 금언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 간주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몇 구절과 용어, 그리고 사례를 통하여 구약성경과 교육문제를 논의할 때 구약성경의 교육구조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견지해온 교육의 내면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구약신학적 연구결과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결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 경우 교육은 단지 강조와 교훈의 차원일 뿐, 기초적 차원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학문적 대답을 얻기 어렵다.

구약성경 혹은 기독교신앙은 그 내면적 기초구조에서 이미 교육적 요구를 담고 있다는 것과,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신앙이 전유되고 신앙공동체가 보존·발전된다는 근본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구약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신학적 구조는 언약이다. 언약이야말로 구약성경의 모든 교육현상과 금언의 내면적 설명이면서, 기독교교육의 구약적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성경과 교육의 의미, 교육의 내용, 교육담당자, 교육의 장소와 시간을 살펴봄으로써 언약이 어떻게 구약 신앙공동체의 교육의 구조적 기초가 되고 있는가를 보이고자 한다. 구약성경을 계시문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정경에 한정하고, 그 시대적 한계에서도 중간시대를 취급하지 않는다.

2. 언약과 교육

2.1 언약의 교육적 함의

구약신학에서 구약성경의 주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언약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비교적 오래된 사실이며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⁷⁾ 언약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개념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함의하는 내용으로서 구약신학의 핵심적 의미를 전달해주는 관계형식의 용어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언약을 종교와 구원의 핵심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개념이며, 신구약 성경의 중심사상 내지 중심구조로 간주한다: “1.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마땅히 순종할 의무가 있으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므로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이나 보상으로서의 결실에 이르지 못하나 다만 하나님 편에서 자원해서 낮추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5.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시행되었다.”⁸⁾

언약은 정의하기 쉽지 않으나 팔미로 벗은에 따르면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의 결속”이라 말

7) O.P.Robertson. 1980. The Christ of the Covenant. Phillipsburg: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서문 p.7.

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1, 5.

할 수 있다.⁹⁾ 언약은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나 결속에 대한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의 의미와, 그 관계의 결속을 영구화하기 위해 언약의 표징을 세우셨다. 동시에 언약의 체결이 자른다(to cut a covenant)는 말로 표현된 것처럼 언약은 삶과 죽음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심도를 내포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그에 따라 실행하시는 언약을 통하여 내적으로 일관성 있게 창조로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창조세계와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하신다.¹⁰⁾ 특히 광범위한 구약성경의 증거들은 노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일에 있어 언약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은혜의 언약 안에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들이 구약성경의 전체적 구조가 되고 있다.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혜자를 선택하시고 또 약속된 축복을 주셨다.

언약은 비록 개신되지만 내적인 통일성과 계속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각 언약은 이전 언약을 상기시키거나 그 이전 언약의 기초에서 새롭게 체결된다. 예컨대 덤브렐의 표현처럼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틀 안에서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¹¹⁾ 언약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체결하시는 대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점진적 의미에서의 다양성을 보이지만 언제나 내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언약이 지난 구조와 주제의 통일성 때문이다. 이전 언약들과의 관계, 역사적 경험, 그리고 자손들에게 승계되는 혈연적 포괄성, 결국 궁극적으로 새언약에 도달되는 논리적 점진성 등은 언약이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약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충분히 보여준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언약의 핵심주제는 한마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 특별한 관계가 이스라엘 종교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언약적 관계가 이스라엘 종교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특징적인 삶의 양식을 정형하였기 때문이다.

언약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삶의 양태의 한 특정인 교육과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언약이 직접 체결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포함하는 혈연승계적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 언약의 표징시행 자체가 새로운 세대의 유입을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약의 체결은 언제나 씨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천대”까지의 자손들을 포함하고 있다(신5:2-3, 7:9, 29:14f; 시105:8-10). 그러므로 언약이 미래의 대상자로 포함하여 하는 자손들에게 의미로운 것이 되기 위해 언약의 성격과 내용은 가르쳐져야 하고, 그 결과 그 후손들도 조상들과 맺어진 언약을 자신의 언약으로 전유하여 그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의 요구를 수행하면서 약속된 바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방인의 경우도 할례를 통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언약관계 안에서 구원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언약관계를 통하여 약속된 구원과 축복이 세대를 통하여 지속되고 향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또한 경건한 지도자들과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었다. 비록 언약이 의식들을 통하여 표현되고, 삶의 전 차원을 포함하지만, 새로운 세대를 포괄하는 이 언약의 원리는 교육을 통하여 혹은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교육의 요구가 언약백성인 구약 이스라엘 삶의 특징적 양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언약의 세대적 영구화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강용원 교수의 다음과 같은 정리는 신명기의 언약과 교육의 관계성의 의미를 잘 요약하고 있다: “... 구약신학자들이 신명기서를 계약(언약)개신문서로 보는 견해는 신명기서의 교육적 관심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개신문서로서의 신명기의 중심개념인 계약과

신명기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인 교육은 상호연관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명기가 교육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계약의 영구화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영구화란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다. 그리고 계약은 언제나 그 계약의 보전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모는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그 계약의 동참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계약공동체의 본질적인 계명이며 계약공동체의 존재양식이 곧 교육이라는 사실이다.”¹²⁾

구약성경은 내면적으로 언약을 중심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언약이 이스라엘공동체의 삶을 정형하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교육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전체 삶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정당한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언약 자체가 교육적 함의와 요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곧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 교육의 이유는 언약의 지속성이며, 그 내용은 언약 자체와 언약의 구체적 요구인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 언약교육의 내용인 율법

언약과 율법의 관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다음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이 언약은 유플시대와 복음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시행되었다. 유플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그 외에도 유대백성에게 부여된 규례를 따라서 집행되었다.”¹³⁾ 여기서 한편으로 율법은 구약성경전체를 포괄하는 시대적 특징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와 규례 등 구체적인 언약집행의 내용과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모세에게 있어서 언약이라는 그릇은 그 내용물로 율법을 담고 있다. 그 결과 언약의 요구가 구체화된 율법의 요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약에의 충실성은 율법에 구체화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율법의 수용과 순종,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이 언약적 형식으로 인준되고 있다.¹⁴⁾ 언약의 구체적 요구를 표현하는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언약교육의 구체적 내용이 되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요구는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영속성의 원리에서 포함되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율법이 포괄하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언약교육의 내용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세 언약의 심장부”¹⁵⁾로 알려져 있는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적 맥락을 보여주는 신명기서는 언약형식에서 십계명을 언약의 내용으로 제시하여 재선포한 후, 가르쳐져야 할 핵심적 내용으로 간주하여 교육을 명령하고 있다.¹⁶⁾ 제사의식과 관련된 법규인 의식법은 의식의 형식뿐만 아니라 제물과 제사장의 상징적 행동들이 담고 있는 의미의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공동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재판과 규례들을 포함하는 시민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공동체의 삶을 준비시키는 교육내용인 셈이다. 이처럼 율법은 언약관계의 한쪽 편인 인간을 향하여, 다른 한편인 하나님에 제시하시는 구체적인 요구로서 언약관계 안에 진입하게 될 새로운 세대들이 익숙하게 학습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세오경 혹은 더 광의적 의미에서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율법은 성전, 가정, 회당 등지에서 이루어진 구약 이스라엘 교육의 내용이었다.

9) O.P.Robertson. op.cit. p.4.

10) T.E.McComisky. 1985. *The Covenants of Promise: a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Covenants*. Grand Rapids: Baker. p.139-212. 맥코미스키는 언약의 약속의 특징과 집행적 특징을 분리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11) W.J.Dumbrell. 1984. *Covenant and Creation: a Theology of Old Testament Covenant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p.80.

12) 강용원. 1982. “Shema의 교육론”. 미스바 제7집. p.110-111.

13)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7:5.

14) W.J.Dumbrell. op.cit. p.31.

15) O.P.Robertson. op.cit. p.31.

16) 신명기 5: 6:1-9.

2.3 언약교육의 현장

신명기 6장 4-9절까지의 본문은 주전 1세기경부터 그 첫 단어인 쉐마라는 말로 지칭되곤 했다. 이 부분은 신명기서의 성격,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언약의 내용에 대한 선포와 더불어 그 언약의 지속성을 위해 요구된 교육명령으로서 “히브리 교육의 현장”이라고 칭해진다.¹⁷⁾

신명기서는 언약개신문서로서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 언약의 지속을 다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5장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언약 요구의 핵심인 십계명을 재진술하고 계명의 순종이 결과케 할 언약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6장 초두에서 당시점에서의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과 손자까지 포함하여 영구히 모든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언약의 의무를 다하여 언약의 축복을 향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킨다. 그리고는 쉐마의 내용이 선포된다. 따라서 쉐마는 언약교육의 명령이며, 이 명령은 언약의 성격에서 직접 유래되는 당위적인 것이었다. 쉐마에 대한 이해는 이 부분이 언약에의 충실성과 언약의 지속성을 위해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진 현장이므로 언약의 초점에서 정당하게 설명될 수 있다.¹⁸⁾ 언약교육의 맥락에서 쉐마의 본문이 보여주는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약의 한 편이면서 동시에 은혜로운 수여자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사랑의 요구이다(신6:4-5).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은 언약교육의 기초이며, 궁극적 목표 혹은 결과이고, 모든 교육과정에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정신이다. 이 명령은 다음 구절들(6-9절)에 이어 나오는 교육명령의 이유이면서 결과의 대 명제이다. 언약은 그 대상자에 대한 사랑의 집착으로만 의미가 있고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언약을 통하여 구원과 축복을 수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참 하나님하신 그 분께 대한 언약적 충성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언약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있게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주제 곧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표현에 비추어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약관계의 기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쉐마의 대 전제는 언약관계성이 구조적으로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사랑이다.

둘째, 언약의 세대적 포괄성의 특징에서 요구되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다. 언약은 그 본질적 구조에서 “세대적 포괄성의 원리(generation principle)”를 보여주고 있다.¹⁹⁾ 언약은 세대를 거쳐 영원히 지속될 승계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후손들까지도 그 언약 안에 포함한다.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세대적 포괄성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혈연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약교육의 일차적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부모는 그 언약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해야하고(6절), 또 자녀에게(7-9절), 더 나아가 그의 손자에게(2절) 계속 새롭게 전유되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지속되게 함으로써 그 후손들도 그 언약관계에서 약속된 축복을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언약의 세대적 지속성을 위한 수단은 바로 교육이었다.

셋째, 언약의 구체적 내용과 요구인 율법에 대한 완전학습의 요구이다. 6절에 나타나는 “오늘 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들”은 바로 앞 4-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앞 문맥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온 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인 율법을 가리킨다. 복수형태로 표현된 “말씀들”(6절)은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11장 18절과 22절을 유의할 때 또한 율법을 지적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비록 유대인들이 테릴린과 메주자에 신명기 6장 4-9절과 11장 13-21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의 유월절 말씀을

17) 강용원. op.cit. p.31.

18) 참고: 정정숙 교수는 쉐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교육,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이스라엘의 의식교육이라는 개념을 끌어내었고, 강용원 교수는 하나님중심의 이스라엘의 존재양식으로서의 교육, 전승으로서의 교육, 가정을 중시하는 교육, 비형식적인 삶의 교육이라는 개념을 끌어내었다. 강용원. op.cit. p.117-120. 정정숙. 1981. “이스라엘의 종교교육연구-신명기 6:4-9를 중심으로”. 신학지 남 48:4.

19) O.P.Robertson. op.cit. p.35, 37, 39.

넣었다고 하지만, 가르치고 강론해야 할 언약교육의 내용들은 그 해당구절보다도 문맥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율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율법은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에 가르쳐져야 할 언약교육의 내용이었다. 동시에 율법에 대한 완전학습을 위해 부모는 그 말씀들을 상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삶의 맥락에서 학습, 적용되어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언약체결 당시 시내산에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에게 필수적인 것이었다. 새로운 세대들이 비록 그들의 조상들과 체결된 언약이지만 그들 자신들과도 맺어진 것을 알고, 그 언약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전인적으로 학습되어 영혼에까지 미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은 지적 가르침의 형식교육을 넘어, 삶의 전체에서 표현되는 포괄적인 완전교육이어야 했다.

3. 언약교육의 담당자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주창자인 동시에 언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의 주도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교육의 교육자인 동시에 교육자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구약성경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을 교육해 가는 역사 흐름의 요점이라는 이비의 지적은 적절하다.²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한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대행자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언약관계에서 제시된 약속의 성취로서 그 백성들이 구원과 축복을 향유하는데 이르도록 부모,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 넓게는 모든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게 하셨다. 여기 열거한 지도자들은 언약이 내포하는 의식을 실행하고,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가르치고, 언약의 요구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충고하며 격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물론 교육을 위한 전문적 기능을 보여주는 교사직은 구약성경에서 명백하지 않다.

언약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주어졌다. 언약 자체의 본질이 세대적 포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쉐마는 부모의 교육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형식교육이 정형화되기 이전에 부모는 거의 “유일한 교사”였다고 말해질 수 있었다.²¹⁾

언약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더 직접적이다. 언약교육의 명령은 아버지에게 직접 주어졌으므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언약교육과 의식을 집행하는 수반이었다. 이스라엘의 언약적 계승은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스라엘의 제 지파는 야곱의 “허리에서”나온다고 할 수 있었다(창35:11). 이처럼 언약의 피의 계승은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교육적 역할도 면제되지 않는다. 잠언서에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잠1:8), 아들 르무엘에게 상세하게 훈계하는 어머니의 교육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잠31장). 가정에서 교육은 자녀가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졌다. 율법의 중요구절들을 반복하여 암송하게 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주며, 의미있는 환경을 구비하는 방법이었다. 기도와 안식일과 절기 준수와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의식에 조심스럽게 참여하면서 언약교육은 이루어졌다. 부모의 교육은 성격상 엄격하였으며, 징계는 필수적 방편으로 간주되었다(잠13:24).

제사장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규정하는 의식을 실행하고, 경결의 문제들에 관하

20) C.B.Eavey. op.cit. p.19-25. 이비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약부분에서 중핵적으로 취급하였다.

21) W.Barclay. 1974.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 Grand Rapids: Baker. p.14-15.

여 심판하며,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이었다. 제사의 기원은 훨씬 오래된 것이지만 제사장직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역할을 규정하였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레위족속을 통하여 계승된 제사장의 역할은 성막 혹은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중재적 사역을 수행하는 의식집행기능이었다. 다양한 제사와 정결의식들은 구약에서의 언약집행방식이었다. 제사를 비롯한 의식들을 집행하면서 제사장들은 그 방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적 의미를 백성들에게 설명하였다. 제사장들에 의해 수행된 제사와 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언약의 성격을 강한 인상으로 전달하였다.

제사장의 두 번째 기능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것이었다. 율법책들은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들에게 맡겨졌고, 제사장들은 정기적으로 율법책을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과 타국인들조차 가르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신31:9-13). 율법을 다루는 자들로 칭해졌던 제사장들은 절기 때 공적으로 율법을 낭독했고,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지방으로 과송받기도 했고, 백성들로부터 율법의 규정과 판단에 대한 답을 요청받았다.²²⁾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적인 교사였다. 특히 포로이후에는 제사와 의식집행이 어려워졌으므로 제사장의 가르치는 기능은 더욱 부각되었으며 그 예증이 에스라였다. 제사장의 율법교육의 목적은 결국 언약관계의 신실성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서의 언약의 성실성을 재각성시키기 위해 선지자들을 세웠다. 선지자의 기원은 신명기 18장 9-22절에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한 선지자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들을 선포할 일단의 선지자들 곧 선지제도를 뜻하고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혹은 그와 비길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인 메시야를 가르치는데 이 두 가지 관련점은 서로 이상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다.²³⁾ 무엇보다도 선지자의 기원이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져 있다는 것은 진보적 신학입장과 대립되는 성경 자체의 주장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므로 선지자는 에드워드 영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당시 근동 사회의 예언자들과 비길 수 없는 독특성을 갖고 있었다.²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식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승인된 대변인이었으므로, 선지자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하는 것과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²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그 내용과 내면에 있어서의 대립이나 차이라기보다는 방법과 형식의 차이를 보였다. 비록 비평가들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바 현실적 차원에서의 차이조차도 계시 자체의 차이나 대립이 아니라 그 계시에 대한 문제시대 사람들의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의 불연속성을 가정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구약 계시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계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관심, 곧 규범보다는 긍정된 현상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현대사회과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지자들의 사역은 직접적인 선포 외에도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백성들의 반응과 응답을 촉구하고 언약관계의 신실성에로 돌아오도록 책망하거나 격려하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율법도 차례대로 낭독하는 공식적 방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수정함으로써 율법의 원의미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확립하려는 성격을 지녔다. 주로 선지자들은 종교사회적 비정상의 시대에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임박한 미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면서도 결국 그 사역은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일차적인 선포였다.

선지자들의 사역이 성인들인 기성세대와 사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그 개혁은 하

나님의 말씀의 내면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혁의 요구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선지자들은 언약의 지속성과 충실성을 목표로 다양한 방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팎에서 가르치는 기능을 수행했다.

지혜문서에 등장하는 지혜자들도 언약교육에서 가르치는 기능을 수행했다. 구약성경에서 지혜는 종교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삶에 대하여 대단히 실제적인 유용성을 포함하고 있다.²⁶⁾ 지혜는 구약성경에서 단순히 지적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곧 마음에까지 미치는 천인적 성격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삶에서 실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혜는 그 근원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된다. 지혜자는 새로운 세대 특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분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면서 행복이라고 가르쳤다.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일상적인 상황에서 통찰력있는, 동시에 경험으로 실증된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지혜를 가르쳤던 지혜자들의 가르침은 곧 언약 안에서의 교육이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넓은 의미에서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언약을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지도자들은 율법을 늘 곁에 가까이 두고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요구받았다. 그들은 또한 백성들을 율법에 맞게 통치해야 했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신실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했다. 따라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 언약의 간신을 목적으로 율법을 재교육했고, 여호수아는 죽음 직전 세겜에서 언약을 세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여호사밧왕은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성읍에 과송하여 율법책을 가르치게 하였고, 요시아왕은 율법책을 통하여 각성하고 전국가적인 회개 곧 언약의 원관계로의 회복을 시도하였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²⁷⁾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두는 백성들을 위한 언약교육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언약이란 한 개인과 한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한 민족 국가를 포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윗시대 이전부터 있었다고 생각되는 서기관들도 제사장들과 함께 종교분야의 기록사무를 담당했으나, 단지 필사하는 역할만 수행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에스라 시대에 서기관학파는 구약성경의 정경정리와 사본정리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였다.²⁸⁾ 따라서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교육의 내용은 율법이었고 그 목표는 언약에의 충실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공동체에서 부모,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 지도자, 서기관은 모두 직접 간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충실성을 위해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언약교육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교육적 기능은 서로 대립되거나 대체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중복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언약이 함의하는 바가 언약공동체의 삶의 총체에 스며들도록 그 기능을 발휘하였다.

4. 언약교육의 장소와 시간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언약교육은 아직 형식적 교육기관이 정형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 말할 때 삶의 전체상황 속에서 언약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쉐마의 본문 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

22) 에스겔 44:23-24는 제사장의 교사기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3) E.J.Young. 1983. My Servants the Prophets. Grand Rapids: Wm.B.Eerdman. p.34f.

24) Ibid.36f.

25) L.J.Wood. 1979.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Baker. p.67.

26) R.W.Pazmino. 1988.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Baker. p.28.

27) 수1:7, 24:25, 대하 17:7-9, 신31:9ff. 등 참고

28) 홍반식. 1984. 구약총론. 부산: 성암사. p.28, 30f.

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7)라는 구절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언약교육의 시간과 장소이다. 더욱이 언약교육을 위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8-9)라는 구절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언약의 의미가 그러하듯 언약교육도 이스라엘 언약공동체의 전체 삶에 스며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였으므로, 언약교육도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삶 전체를 포괄하며, 삶 전체에 적용되어야 했다. 비록 포로시대 이전까지는 형식적 성격의 교육기관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언약교육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삶, 의무 수행에의 참여 및 그 일에 대한 부가적 의미설명을 통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4.1 가정에서의 언약교육

언약공동체에서 가정은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기본단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언약교육의 일차적이며 이상적인 학교였고, 부모는 자연스럽게 언약교육의 교사역할을 수행하였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언약의 세대적 계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은 언약교육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정에서는 언약의 내용인 율법의 가르침,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하는 의식들이 있었다. 새로운 세대는 부모들로부터 언약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고, 의식에 참여하여 언약의 의무들을 수행하면서 언약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언약의 소망에 따른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출생한 후 8일째 되는 날 시행되던 할례의식에서 이름이 주어지면서 언약의 자손임을 확인한다. 생후 40일째 결례로 어머니는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식사 전후에 기도가 드려졌으며, 기도문은 어린이들이 처음 암송해야 할 내용이었다. 13세에는 율법을 스스로 준행하면서 종교상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구별된 안식일에 가정에서는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가 그 전날부터 이루어졌다. 등불이 밝혀지고 식탁 위에는 만나를 상징하는 빵이 놓였다.²⁹⁾

이러한 가정의 의식들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므로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적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또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언약의 자기화에 좋은 교육 방법이기도 했다.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들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언약의 교육은 새로운 세대에게 가장 첫 경험이면서 또한 언약백성으로서의 영구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였음에 분명하다.

4.2 성전과 회당에서의 언약교육

성전은 언약백성의 삶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혹은 성전을 통하여 임재하셨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양한 제사의식들과 주요한 절기의식이 집행되었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범죄한 일들을 속죄하고, 부정한 것에서부터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을 도모하고,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현신을 다짐하는 의미의 제사들은 언제나 언약관계의 회복과 강화에 맞추어져 있었다. 제사장은 제사의 규정과 의무들을 설명하였다. 제사 자체를 위하여 그리고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일은 성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었다. 더욱 직접적으로 성전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 해설되었고, 항상 훌륭한 율법교사들이 있었으므로 언약교육의 중요한 장소였다. 율법책이 이 곳에 보관되었고, 또 율법책의 필사

와 연구가 이루어진 곳도 성전이었기 때문이다. 성전 주변은 경건한 사람들의 순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얻은 종교적 질문과 토론과 대화가 이어지는 곳이었다.

주전 6세기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 성전에서의 제사의식이 불가능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과 해설과 기도가 그 중심인 회당예배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에스라 시대에 회당은 팔레스틴 전역에 세워졌으며, 이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주변근동세계에 회당들이 설립되었다.³⁰⁾ 회당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예배보다 더욱 교육적 성격을 짙게 드러내었다. 후에 필로가 회당을 "가르침의 집들"³¹⁾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회당은 언약교육의 학교와 같은 성격을 가졌고, 여기서 분화하여 결국 교육을 위한 형식적 전문기관인 학교가 발생하였다. 회당은 윤법연구와 교육의 중심지였고, 윤법의 연구자들인 서기관들은 회당의 주요한 교사들이었다.

이처럼 성전과 회당은 언약교육의 공식적 교육기관이었다. 성전예배가 어려워지고 회당이 확산되면서 언약에 근거한 공동체의 교육적 기능은 더욱 분화되어 발전하였다.

4.3 절기의 언약교육

언약의 내용과 집행방법을 보여주는 윤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절기들을 통하여 언약의 관계를 구현하고 언약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였다. 구약성경의 여러 가지 절기들은 히브리인들의 역사, 전통,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화축제의 성격을 넘어, 이스라엘 종교 그 자체, 곧 표면적으로는 윤법의 요구이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구체화, 언약관계에 대한 신실성을 표현하는 종교적 절기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비롯되는 구원과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결속을 확인하고, 절기에 참여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의 의미를 내면화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였다. 절기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축복인 구속의 혜택을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인 셈이다.³²⁾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안식일, 안식년, 회년 등의 절기들은 구원역사적 의미, 그리고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언약교육적 기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절기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월절은 언약의 약속인 애굽에서의 구속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며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첫 유월절을 재현할 때 하나님의 구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세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이 구속역사적 절기에 대한 규정에는 절기의 지속적 준수에 대한 명령과 함께 교육적 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가 이 절기에 참여하여 가지는 호기심과 질문을 예상하였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출12:26).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이러한 질문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절기의 규례와 상징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할 때 부모들은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약속처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가르치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유월절 절기의 궁극적 의미를 보여주는 결론은 언약의 하나님 야웨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분을 감사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다(출12:26-27). 이것은 곧 유월절 절기가 언약교육을 목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월절에 이어 한 주간동안 지속되는 무교절 절기에도 언약교육은 계속된다. 누룩없는 빵을 먹으면서 보내는 무교절기 동안 새로운 세대가 의식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에 대하여 질문할 때, 성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언약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 언약의 요구인 윤법을 마음으로

30) C.B.Eavey. op.cit. p.64.

31) W.Barclay. op.cit. p.24.

32) 조성국. 1999. "히브리인의 절기교육". 교회와 교육 1 월호. p.18.

29) L.J.Sherrill. op.cit. p.24-26.

부터 순종하도록 교육해야 했다(출13:8-9).

각 가정에서 초막을 만들어 생활하는 초막절 한 주간 동안 성인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약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살도록 독려하였다. 이 기간동안 단편적으로 선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스라엘 구속역사 전체가 생동감 있게 전개되었다(신4:9, 6:20). 절기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과거의 역사는 자신의 역사가 되고, 선조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세대를 거쳐 영속되는 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초막절 규정에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레23:42-43).

이처럼 절기는 언약교육의 시기였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을 기억하고, 언약의 축복으로 추수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하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경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의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언약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교육은 참여, 실물, 내면화와 실행을 포함한 완전학습이면서 또한 전인교육이었다. 교육의 방법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의식의 소재와 상징에 대한 배경과 의미설명으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대화와 이야기였다.

5.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 및 분석에서 기독교교육을 위해 성경이 드러내는 교육구조의 원형이 구약 성경에 드러났고, 그 원형은 언약교육임이 밝혀졌다. 언약은 구약성경의 신학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핵심의 요청을 담고 있는 교육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언약교육이라는 말로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과 교육은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은 사실상 그 공동체의 보존과 발전을 영구하게 하는 자연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수단이었다.

물론 구약성경의 언약교육은 기독교교육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의와 함께, 문화와 발전에 관한 한 한계성을 가진다. 구약성경에서 교육을 위한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직과, 교육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설립된 공적 기관으로서의 학교 및 교육체계와, 잘 계획된 교육과정을 찾기 어렵다. 한 마디로 표현하여 형식적 교육보다는 비형식적 차원의 공동체 교육이 구약성경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구약성경의 교육이 원형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언약교육은 기독교교육의 발전과정에서 비형식적 교육과 단순하고도 잠정적인 형식적 신앙 교육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물론 개혁교회공동체에 의해 학교교육의 영역에서도 언약교육의 원리가 적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전반에 있어서 언약은 기독교교육의 원형이면서도 기독교교육분야에서 정당한 원리로 이해되지 못했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이론 분야의 과제 중 하나는 언약의 교육적 기초와 원리에 대한 의미의 탐구를 심화시켜나감과 동시에, 원형으로서의 언약교육이 오늘날의 기독교신앙교육과, 기독교공동체의 교육전반에 가져야 할 구조적 체계화에 관심을 갖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高神大學校
論文集第25輯
2000, pp. 81~101

의료선교의 중요성과 21세기의 전망

이 복 수*

목 차

- I. 시작하면서
- II. 기독교선교와 의료봉사의 관계
- III. 기독교 선교역사 속에 나타나는 의료 선교의 중요성
- IV. 21세기 의료선교의 전망과 방향

I.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21세기의 시작에 대단한 기대를 가졌고, 나라마다 화려한 행사를 속에서 떠들썩한 첫 날을 보냈으나 곧 다시 21세기 이전의 어느 날과 다름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해외의 선교 현장에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지난날과 다름없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을 위하여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해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야하며 계속되는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기(century)”라는 한 분절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나누는데 필요한 단위일 수 있으며 그러한 단위로 통하여 오늘의 입장에서 과거를 진단하기도 하며 오늘의 입장에서 미래를 예상해 보는데 유익하다. 특별히 이러한 세기의 한 분절을 맞으면서 “의료선교의 중요성과 21세기의 전망”이란 주제를 통하여 기독교 선교와 의료봉사의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해보며, 지난날의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의료선교의 위치와 중요성을 고찰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기에서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을 전망해보면서 그것들을 위한 과제들을 고찰해 본다.

* 선교언어학과